

경제

치솟는 물가 ... 여수 5.7% 전국 최고

■ 호남지방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동향'

전남, 농축수산물 주도 5%대 진입
광주, 7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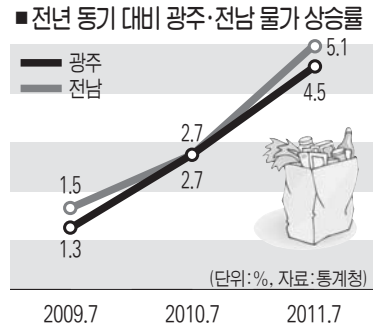
여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4개월 만에 5%대로 치솟았고, 광주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7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여수는 통계청 조사대상 전국 34개 도시 중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인 5.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4.7%보다 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개인서비스요금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0(2005년=100)으로 전달에 비

해 0.7%,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 각각 상승했으며 대전(5.6%)과 부산(5.4%), 대구·울산(5.2%), 경북(5.1%), 전북(5.0%) 등과 함께 5%대에 진입했다.

전남의 물가지수는 지난 2월과 3월 각 5.1% 상승률에서 4월부터 4%대로 내린 뒤 4개월 만에 다시 5%대로 진입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4.0%를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4%대 이상을 유지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달에 비해 0.8%,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가 각각 올랐다. 지난해에 비해 열무(86.9%), 상추(83.0%), 배추(76.3%), 양상추(58.1%) 등의 가격이 크게 올



라 인상을 주도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달 대비 6.5%,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6.4% 각각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에 비해 8.5%, 공업제품이 6.2%, 개인서비스가 2.9% 각각 올랐다. 특히 광주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전달보다 15%가량 상승했고, 골프장 이용료(44.4%), 운동경기관람료(34.6%)도 큰 폭으로 올랐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좋지 않은 기후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고, 공공서비스요금과 가격인하조치가 끝난 석유류 등이 상승을 지속해 당분간은 고물가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4.7%보다 낮지만 지난 1월 4.

0%, 2월 4.5%, 3월 4.4%, 4월 4.2%, 5월 4.2%, 6월 4.2% 등 지난 1월 이후 7개월 연속 여전히 4%대의 높은 증가폭을 이어갔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달에 비해 1.1%,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4.4%가 각각 올랐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달 대비 5.8%,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7%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에 비해 8.5%, 공업제품이 6.2%, 개인서비스가 2.9% 각각 올랐다. 특히 광주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전달보다 15%가량 상승했고, 골프장 이용료(44.4%), 운동경기관람료(34.6%)도 큰 폭으로 올랐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좋지 않은 기후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고, 공공서비스요금과 가격인하조치가 끝난 석유류 등이 상승을 지속해 당분간은 고물가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스포티지R' 국내 SUV 시장 1위 탈환

상반기 2만6703대 팔려
6년 만에 싼타페 추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R'이 국내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시장 1위를 탈환했다. 지난 2006년 현대 싼타페에 자리를 내준 지 6년만이다.

1일 기아차 광주공장과 업계에 따르면 스포티지R은 올해 상반기 광주공장에서 9만183대를 생산해 국내에서 2만6703대가 팔렸다. SUV 시장 점유율 22.5%로 쉐보레 투싼(2만1245대)과 투싼i(2만1245대)보다 25%이상 앞서며 판매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광주공장의 히트작 '뉴 스포티지'가 1위를 달리다 지난 2006년 싼타페에 자리를 빼앗긴 지 6년만의 정상 복귀다.

스포티지R의 선전은 지난 3월

출시한 터보 GDI(가솔린 연료직분사)모델의 인기몰이에 힘입고 있다.

터보 GDI 모델은 기아차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세타II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했다. 최대출력 261마력, 최대토크 37.2kg·m의 동력성능을 확보, 국내 경쟁 차종은 물론 수입차를 압도하는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또 연비도 자동변속 기준 11.2km/ℓ로 뛰어난 경제성을 갖췄다.

심장을 바꿔 단 스포티지R GDI는 출시 첫 달 922대를 판매했다. 디젤을 포함하면 4261대를 팔았다.

이후에도 터보 GDI가 판매 순항을 이어가면서 올해 상반기 스포티지R 가솔린 모델은 지난해(1851대)보다 2배가량 늘어난 3263대의 실적을 올려 전 모델 대비 판매 비율이 12.2%에 달했다.

경쟁 차종인 투싼i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가솔린 모델 판매 비율이 1.8%(2만1245대 중 372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스포티지R의 가솔린 모델 비중이 현격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고유가로 SUV 시장에서 가솔린 모델의 판매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과 대비돼 주목할만하다.

투싼i의 경우 가솔린 모델의 판매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4.6%에서 올해 1.8%로, QM5는 35.5%에서 16.1%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스포티지R은 가솔린 모델의 판매가 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가 독자개발한 터보 GDI 엔진으로 바뀐 스포티지R의 성능은 물론 연비도 크게 향상된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투자자 주식거래량·대금 증가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7월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2011년 7월 중 광주·전남지역 투자자 주식거래 실적동향'을 보면 거래량은 4억4550만주로 전달보다 1억895만주(31.48%) 증가했다. 지역 순매수량도 전달보다 176만주가 늘었다. 거래대금은 3조9461억원으로 전달 3조1377억원보다 8085억원(25.77%) 늘었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에서 2.74%, 거래대금은 2.03%로 각각 전달보다 0.09%포인트, 0.1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의 경우 알앤엘바이오, 진흥기업, 일신석재, 골든나래리츠, 대유에이텍 등의 순이고 코스닥은 솔고바이오, 이노셀, 테라리소스, 세운메디칼, 미주제강 등의 순이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은 하이닉스, 기아차, OCI, 한화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이었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경총 산학협력 협약 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민수)는 최근 순천 청암고등학교, 여수 거승직업전문학교와 '2011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과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중기 기술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중기기업청은 1일 호남지역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제품 창출을 돕는 '중소기업 기술융·복합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광주테크노파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5월 센터 설립 사업 공고 후 대학·연구기관·중소기업지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호남권에서는 모두 7곳이 접수해 최종적으로 광주테크노파크를 선정했다.

센터에서는 업종별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11월 말까지 중소기업형 첨단 융·복합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되며,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내년 중기청으로부터 과제당 5억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센터는 일선 업체를 상대로 융·복합 기술 개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업종별 기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세미나도 주관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7월 수출 500억 달러·흑자 70억 달러 돌파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500억 달러, 흑자가 70억 달러를 각각 돌파하면서 수출과 무역흑자 모두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유럽연합(EU)으로 수출은 소폭 줄고 수입은 크게 늘면서 대 EU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

난해 같은 달보다 27.3% 증가한 514억46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금까지 월간 최대치였던 지난 4월의 기록(486억 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의 벽을 깼다.

수입은 24.8% 늘어난 442억2300만 달러로, 역시 처음 70억 달러를 넘어 72억2300만 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달 FTA가 발효한 EU로의 수출은 8.7% 감소한 반면, 대 EU 수입은 44.9% 증가하면서 5억 5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연합뉴스

■ 새 얼굴 "부동산가격 등 정확한 정보제공 노력"

김성식 한국감정원 호남본부장

“국민의 재산을 공정·정확하게 평가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성식(52)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은 “공기업으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와 사회간접자본(SOC) 보상평가, 기업가치평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본부장은 전주 출신으로 한양대를 졸업했으며, 목포지점장·순천지점장·전주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예약문의: 062-576-8600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 평일 | 영업시간 | 성인 (중학생이상) |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 미취학어린이 (5세-7세) | 토·일 공휴일 | 영업시간 | 성인 (중학생이상) |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 미취학어린이 (5세-7세) |
|--------|---------------|------------|--------------|----------------|---------|---------------|------------|--------------|----------------|
| LUNCH | 11:30 - 15:30 | 25,000원 | 12,000원 | 8,000원 | LUNCH | 11:30 - 15:30 | 31,000원 | 18,000원 | 12,000원 |
| DINNER | 16:00 - 22:00 | 31,000원 | 18,000원 | 12,000원 | DINNER | 16:00 - 22:00 | 31,000원 | 18,000원 | 12,000원 |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